

### 다시 푸는 경서

####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②7

平日好打無明的 也不打了  
 平日好名好利的 也不要了  
 平日好多智識的 也沒有了  
 平日諸多習氣的 也沒有了  
 平日諸多煩惱的 也沒有了  
 平日諸多愛著的 也沒有了  
 平日諸多執著的 也沒有了  
 平日諸多分別的 也沒有了  
 平日諸多執著的 也沒有了  
 平日諸多分別的 也沒有了

일구와두 여의천장점 마래마참 불래  
 佛斬  
 佛斬  
 不計其數妄想 有甚麼打不得  
 佛과심마망상 유심마타득이한

하루종일 행주좌와 동정한함을 막론  
 하고  
 온 몸이 안팎 통채로 하나의 의념이  
 되어  
 언제나 끊이지 않고 의심하며 가라.  
 털끝만큼의 탄생각이 섞여도 안된다.  
 일구 회두로 마치 천장점에 의지하듯  
 마군이 오면 마군을 베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베라.  
 어떤 망상도 두려워 말라. 무엇이 있  
 어 그대로 침범하겠는가.

경소에 못된 짓을 하던 이도 가만히  
 있을 것이며  
 경소에 명리를 좋아하던 이도 모른척  
 할 것이며  
 경소에 습기와 때가 많던 이도 그것  
 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 무엇도 분별하지 않고 그 무엇도  
 놓아 버린다.

諸位同參呀 我們這箇福寶子  
 祇因這箇福寶子  
 一口氣不來 就是一具死屍  
 一口氣不來 就是一具死屍  
 一口氣不來 就是一具死屍  
 一口氣不來 就是一具死屍  
 一口氣不來 就是一具死屍  
 一口氣不來 就是一具死屍  
 一口氣不來 就是一具死屍  
 一口氣不來 就是一具死屍  
 一口氣不來 就是一具死屍

又那箇去分動分靜 那箇去着  
 有甚麼去分動分靜 那箇去着  
 有甚麼去分動分靜 那箇去着  
 有甚麼去分動分靜 那箇去着  
 有甚麼去分動分靜 那箇去着  
 有甚麼去分動分靜 那箇去着  
 有甚麼去分動分靜 那箇去着  
 有甚麼去分動分靜 那箇去着  
 有甚麼去分動分靜 那箇去着  
 有甚麼去分動分靜 那箇去着  
 有甚麼去分動分靜 那箇去着

### “몸뚱이 숨 들이쉬지 못하면 시체이니 소중히 여기기보다 다만 놓아버려라”

不去寶貴他 根本不把他當作是我  
 不去寶貴他 根本不把他當作是我  
 不去寶貴他 根本不把他當作是我  
 不去寶貴他 根本不把他當作是我  
 不去寶貴他 根本不把他當作是我  
 不去寶貴他 根本不把他當作是我  
 不去寶貴他 根本不把他當作是我  
 不去寶貴他 根本不把他當作是我  
 不去寶貴他 根本不把他當作是我  
 不去寶貴他 根本不把他當作是我

또 어찌 동과 정을 분별하여 집착하  
 겠는가.  
 공에 집착하면 망상을 두려워 할만  
 하나  
 그것은 또 하나의 망상을 덧씌우는  
 것이다.  
 청정하다고 알면 이미 그것은 청정이  
 아니다.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면 이미 유에  
 떨어진 것이다.  
 성불한다 생각하면 이미 마군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대들은 알아듣는가. 우리들도 이 일  
 개 몸뚱이  
 숨 한번 들이쉬지 못하면 곧 한 구의  
 시체라  
 우리들이 놓아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다만 몸뚱이를 소중히 여겨서  
 너니 내니 옳으니 그르니 애증과 취  
 사의 마음을 내기 때문이다.  
 만약 이 한 몸뚱이가 곧 한 구의 시  
 신이라 인정한다면  
 보배처럼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근본적으로 그것이 나라고 보지도 않을  
 것이니  
 도리어 무엇을 놓지 못하겠는가. 다만  
 놓아버려야 한다.

所謂通水無礙 無礙無礙  
 所謂通水無礙 無礙無礙  
 所謂通水無礙 無礙無礙  
 所謂通水無礙 無礙無礙  
 所謂通水無礙 無礙無礙  
 所謂通水無礙 無礙無礙  
 所謂通水無礙 無礙無礙  
 所謂通水無礙 無礙無礙  
 所謂通水無礙 無礙無礙  
 所謂通水無礙 無礙無礙  
 所謂通水無礙 無礙無礙

二六時中 不離行住坐臥 動靜無間  
 二六時中 不離行住坐臥 動靜無間  
 二六時中 不離行住坐臥 動靜無間  
 二六時中 不離行住坐臥 動靜無間  
 二六時中 不離行住坐臥 動靜無間  
 二六時中 不離行住坐臥 動靜無間  
 二六時中 不離行住坐臥 動靜無間  
 二六時中 不離行住坐臥 動靜無間  
 二六時中 不離行住坐臥 動靜無間  
 二六時中 不離行住坐臥 動靜無間  
 二六時中 不離行住坐臥 動靜無間

이른바 물 길고 나무 하는게 모두 아  
 닌게 없고  
 발걸고 씨뿌리는게 모두 선기라고 하  
 는 것은  
 하루종일 퍼질러 앉아 다리꼬고 있어  
 아 비로소 공부가 되고 도리를 알게 된  
 다는 것과 다르다.

이름바 물 길고 나무 하는게 모두 아  
 닌게 없고  
 발걸고 씨뿌리는게 모두 선기라고 하  
 는 것은  
 하루종일 퍼질러 앉아 다리꼬고 있어  
 아 비로소 공부가 되고 도리를 알게 된  
 다는 것과 다르다.

이름바 물 길고 나무 하는게 모두 아  
 닌게 없고  
 발걸고 씨뿌리는게 모두 선기라고 하  
 는 것은  
 하루종일 퍼질러 앉아 다리꼬고 있어  
 아 비로소 공부가 되고 도리를 알게 된  
 다는 것과 다르다.

龍眼

## 큰 스님 수행한담

# ‘나에게도 불성있다’ 믿고

### 구암스님 <광덕암 주지>

- 1918년 목포 생
- 효봉스님을 은사로 총무 미래사  
에서 출가
- 60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및 보살계 주지
- 해인사 15인거성만을 비롯 동화사  
통도사 등 제법선원서 수행
- 72년부터 78년 천축사 무문관서  
6년 두문불출 정진



말라는 것 그리고 돌아 다니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일세.”

그날 이 한마디의 가르침이 내 평생 수  
 행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 자신을 믿으며  
 그 네가지 믿음을 꼭 지키고 살아왔다는  
 결심을 했었던 겁니다. 불교를 공부하  
 고 정진하는 삶을 살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 또는 복락을 누리는 것이 모두 믿음에  
 서 시작됩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말 보  
 다는 ‘자신을 믿는다’는 말이 더 맞는 겁  
 니다. 불교는 자신의 불성(佛性)자리를 믿  
 고 그걸 알아내어 마침내는 불성의 삶(이  
 것이 곧 부처를 이룬 자리)을 살고자 하  
 는 종교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되 이 풍  
 랑에 뒤떨어진 바다와 같은 세상을 이리저  
 리 살아가는 육신으로서의 자신을 믿어서  
 는 안됩니다. 자기에게 옳듯이 머금어진  
 불성 곧 부처의 성품을 믿으라는 것입니

### “부처님께서 목숨걸고 고행하셨듯 우리도 생과 死 두 글자 목에 걸고 번뇌망상 떨치는 정진을...”

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는다는 의미는 자  
 신에게 갖추어진 불성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에 앞서서는 자신에게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일연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자신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병 든 사람이 의사를  
 믿지 못해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  
 면 제대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믿는 한  
 곳에 자신을 꼭 매어 두고 일념정진하면  
 마침내 증생고의 모든 번뇌망상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념정진이란 생과 사  
 를 걸고 하는 무서운 정진이어야 합니다.  
 재가자들에게야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

런 정진이 없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부처  
 님께서 목숨을 걸고 고행하셨듯이 우리도  
 생사(生死) 두 글자를 목에다 걸어 놓고  
 정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는 20여년전에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에서 6년 두문불출 정진을 한 적이 있습  
 니다. 벽에 생사 두 글자를 써 놓고 6년간  
 문 밖을 한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무서운  
 결사였지요. 제2회 결사에서 나와 원공스  
 님이 성만했고 그에 앞서서는 관음스님과  
 재선스님이 성만했습니다. 그리고 무문관  
 결사가 없어졌지요. 요새는 6년은 고사하  
 고 6개월 두문불출 정진도 힘겹다고 하고

3개월 안거 수행에서도 탈락자가 더러 있  
 다니 수행의 매서운 기운이 많이 무뎠지  
 긴 했나 봅니다.

무문관이 다 지어지고 낙성 기념으로 1  
 백일 특별 정진을 하고 거기서 다섯명의  
 수좌를 골라 6년 정진결사에 들어간다는  
 서찰이 전국의 선방에 들었습니다. 65년의  
 일로 기억 되는데 나는 그때 동화사 금당  
 선원에 있었습니다. 금당선원에는 8명의  
 남자들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막상 무문관  
 에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했더니 아직 그  
 려만 수행이 익지 않았다고 말리더군요.  
 그래서 “수행하는데 그런 것이 왜 필요하  
 나.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지 연륜을  
 따질 것은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지난해  
 입적하신 서운스님에게 추천서를 받아들  
 고 도봉산으로 갔던 겁니다. 모두 28명의  
 선객이 1백일 특별정진에 들어 갔고 나도  
 그중에 끼어 무사히 회향을 했습니다. 그  
 런데 나는 바로 두문불출의 6년 정진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근기를 다질 필요  
 가 있다는 판단에서 우선 천축사의 동구  
 밖을 안 나가는 동구불출 정진을 3년간

## 장엄불사 조감도

스님의 생각을 현실로 표현해 드립니다.  
 (주)두풍은 찬란한 불교 문화를위한 전문업체 입니다.



(주)두풍산업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완벽한 기획, 설계, 디자인으로 확실한 조감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불, 사찰건축, 건설전문업체

株式会社 三豊産業 대표 02) 432-7777  
 doopoom 서울 중랑구 명우동 486-8 (두풍 B/D) 전화 02) 439-3900

#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경암 김준현스님 禪詩百選  
 時調詩로 엮은 깨달음의 詩!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깨칠 것인가를  
 잔잔한 물결처럼 나직히 일러주는 스님의 목소리...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8만 4천 원  
 꽃 한 송이에 갈힘을 보고  
 눈 푸른 남자(衲子)는 꿈 깨어  
 회열로 이말 쳤단다.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네 이마도 안 남으리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TEL: 738-6270, 735-7202  
 FAX: 733-1016  
 (정가 10,000원)